



글쓰기

이런저런

## 대학원 신입생들을 위한 연구 미팅 팁들

공허한 알렉산더 플레밍

2021.08.02 ㄸ 22 ㉟ 44117



안녕하세요.

올해 박사 졸업 예정인 사람입니다.

학위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니 마음이 붕 떠서 일이 손에 잘 안 잡히고, 다른 대학원생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김박사넷을 자주 들락거리네요 ㅎㅎ

아무래도 익명 게시판이다 보니, 최근 사람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글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래도 국내에서 제일 활발한 대학원생들의 커뮤니티인 점을 생각하면, 최대한 대학원 생활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이 많이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대학원 생활 동안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까지도 큰 깨달음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글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은 '연구 보고' 활동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 입니다. 연구 보고 활동은 랩 미팅, 또는 교수님과 진행하는 개인 미팅 등을 의미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각자 처해있는 환경, 연구실의 분위기, 지도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 전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들일 수 있는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연구 보고는 결과보다는 과정 위주로

우선 랩 미팅, 또는 교수님과의 개인 미팅 등 본인의 연구 진척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연구실 내 미팅에 한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실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첫 연구실 미팅 발표를 들어보면 대다수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의 '결과'만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주 멋지게 그려진 결과 그래프와 FEM 해석 결과로 나온 형형색색의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professional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본 지도 교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서 뭐? so what?"

이런 반응에 대한 이유는 크게 봤을 때 대부분 동일합니다.

'연구 내용을 들은 타인들이 반응할 요소가 없는 경우'이죠.

연구에 대한 피드백은 나의 생각, 즉 본인이 생각한 연구 결과에 대한 '결론'을 전달할 때 이루어집니다.

결과와 결론은 다릅니다. 결론은 연구 결과에 대한 연구자 본인의 의견과 구찰 특찰이 담겨있는 마무리인 반면, 즉, 자신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는 한 다른 청자들이 피드

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래서 뭐 어쩌란 거죠?...' 라는 반응이 나오기 일수 입니다.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저는 '연구'의 본질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니까요.

또 다른 상황으로는, 그런 결과들을 얻기 위해 본인이 적용한 가정들, 또는 시뮬레이션 및 실험 조건들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연구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한들, 그 이전에 먼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이러한 신뢰성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내가 어떤 과정으로 해당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입니다.

즉, 본인의 연구 '과정'을 잘 설명하고 전달해주는 것이 결과를 멋있게 포장할 때 보다 더 의미있을 때가 많습니다.

연구 과정이라고 해서, 자신이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활동 (참고 문헌 공부, 실패한 사례 등)을 다 언급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설정한 가정들, 그리고 내가 계산이나 실험에 적용한 조건들이 가지는 물리적인 의미, 그리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선택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돌다리를 하나하나 두드려보고 건너듯이, 내가 설정한 사소한 옵션들 하나하나 모두 공부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연구 능력도 이러한 활동들로부터 많이 향상됩니다.

또한 교수님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 부터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도 이러한 '연구 과정'에 대한 설명은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바로 옆에서 연구를 하나하나 같이 진행한 사람이 아니라면, 중간 설명없이 결과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설령 교수님이라 할지라도요...

때문에 본인의 연구실 미팅 또는 개별 미팅의 텀이 매우 길다고 판단된다면, 매 미팅마다 짧게라도 본인이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어떤 수식이나 조건을 이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추후에 나올 수 있는 공격적인 코멘트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2. 멘탈 무너지지 맙시다...

어쩌면...대학원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그리고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숙달되어야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랩 미팅이든 개별 미팅이든, 여러분들은 연구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질타를 받게 됩니다. 특히나 지도 교수님으로부터요....

정말 한 차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모진 피드백을 듣고 나면 등에 식은 땀이 주르륵 흐르고

그날 하루는 뭘 해도 기분이 울적하고 심할 경우는 그 한 주가 엉망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 교수님이 호랑이 교수님이셔서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본인의 감정이 depress되는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럴 때 일 수록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애초에 생각해 보면, 나의 연구에 대해서 칭찬만 들으려고 연구실 미팅이나 개별 미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 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해석이 있는 부분이 고쳐지기 위해선 당연히 비판이 있어야 하며,

그런 과정이 마냥 긍정적이고 즐거운 방법으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자신의 생각과 반하는 의견을 들었을 때는, 설령 그 의견이 매우 친절하고 듣기 좋게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요지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잘 걸러 듣고, 코멘트들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연구에 피드백들을 "어떻게든 잘 듣고 싶어요"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매 미팅 때마다 누르누르 "어떻게든 잘 듣고 싶어요"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면 정말 위압감을 느끼고 피드백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내가 지도 교수님의 성향을 바꿀 순 없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수 밖에 없는...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멘탈 관리...대학원 생활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대학원 생활을 크게 보면 결국 '자기 관리'를 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내가 나의 신체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관리하지 못한다면, 누구는 쉽게 넘어가는 일들도 나에게는 너무나 큰 벽과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겠지만...항상 마음을 잔잔한 호수와 같이 유지하는 방법을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돌을 던져도 금방 평정을 되찾을 수 있게끔 말이죠...

뭔가 글 끝에서 내용의 초점이 많이 흐려진 느낌이 듭니다만...

그래도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는 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대학원생들이 건강하고 보람찬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줄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 140  비공감 1

댓글 22

 댓글쓰기

조급한 칼 세이건

2021.08.02



"결과와 결론은 다릅니다."

대댓글 0개 [대댓글 쓰기](#)

  33  0

진지한 닐스 보어

2021.08.02



교수님 가이드에 따라 가세요

[↪ 대댓글 1개](#) [대댓글 쓰기](#)

  

연구 소개만하는것보다 기존연구 소개하면서, 본인의 생각이나 어떤식으로 접근해서 사용할수있겠다  
로  
맏는게 웬만해서는 맞긴할듯. 근데 보통 이런 접근법이나, 다른연구에 대한 평가같은건 어느정도 해당분  
야 지식이 쌓여야만 가능한것같긴해서, 결국 시간과 노력이 약인듯

👍 1 🗨️ 0

사려깊은 쇼펜하우어

2021.08.02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대댓글 0개 [대댓글 쓰기](#)

🔔 👍 1 🗨️ 0

답답한 데이비드 흠

2021.08.02



솔직히 맞습니다 멘탈을 부여잡는게 맞는 건 맞으나..

우리나라 랩실은 대부분 discussion이 아닌 질타를 하기위한 미팅이 된다는 느낌이랄까..

물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게 맞으나 해외 문화는 잘못된 것보다 다른 생각으로 받아들이죠.

맞아요 교수님 입장에서도 터무니 없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로 보이겠죠 하지만 랩실은 회사가 아닌

학문을 위하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지 discussion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발한 discussion이 일어나면 식은땀이 아닌 즐거움과 재미로 변화되는 미팅을 할 수 있을텐데 말이  
죠..

요즘은 조금 안타깝네요 랩실이 회사인 것 처럼 마냥 돌아가는게..

↳ [대댓글 2개](#) [대댓글 쓰기](#)

🔔 👍 17 🗨️ 2

공허한 알렉산더 플레밍 (작성자)

2021.08.02



좋은 댓글로 침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해주신 내용에 많이 공감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외국에서 온 교수님들이나 학생들과 얘기해보  
면, 참 일상 대화하듯이 서로 연구 내용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연구를 이끌어가기 위한 참된 discussion을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나라 대학원에선 뭔가 성과 위주의 발표를 해야만 하고... 그러다보니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닌 랩 미팅을 위한 미팅 준비해야 하는 압박감이 있는 듯 합니다...

다행히 최근 임용되시는 차세대 젊은 교수님들 중에서는 이런 기존 대학원 문화의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외국과 같이 학생들과 많이 소통하고 연구의 progress를 위한 양질의 discussion을 잘 해주시는 분들  
이 많으신 듯 합니다.

앞으로도 대학원 문화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힘써주시면 좋겠네요...

👍 8

도 줄어든다는 건 감안을하고 가야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입학한다면 그래도 젊고 깨어있으신분과 토론과 토론이 끝없이 이어지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네요.

👍 5 🗨️ 0

 똑똑한 미셀 푸코



2021.08.02

ㅎㅎ 제 지도교수라고 하는 양반은 마음에 안드는 점이 조금이라도 있는 신입생을 발견하면, "이게 다 너희 부모가 너를 잘못키워서 그렇다"는 발언을 해댔다죠. 사실 마음에 안드는 신입생 대상이라고 하기도 뭐한게, 결국 랩 내 모든 학생들이 다 한번씩은 이 말을 들어보니 강 초반 기선제압용 발언인것 같네요. 이런 류의 말 들으시면 강 뒤도 돌아보지 말고 튀세요. 일하다 결과 안좋으면 학생 부모탓할 위인입니다.

↳ [대댓글 1개](#) [대댓글 쓰기](#)

🔔 👍 12 🗨️ 0

 공허한 알렉산더 플레밍 (작성자)



2021.08.03

세상에...교생이 많으시군요 ㅠ...교수 댄에는 정말 기선제압이나 정신차리라고 말한 것 같은데 표현이 정말 저급하네요...

암만 학생이 답답하고 잘 따라오지 못한다 한들 저런 상처받는 말을 하면 안되는데, 참 역지사지도 모르고 학생을 너무 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1 🗨️ 0

시끄러운 막스 베버



2021.08.02

교바교입니다. 저희 교수님은 과정 열심히 설명해도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은 안중요하다고 하십니다;;.... 항상 하는 말이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별로 안중요하고 열심히 했어도 결과가 없으면 관심없다고..ㅋㅋ

↳ [대댓글 2개](#) [대댓글 쓰기](#)

🔔 👍 9 🗨️ 0

 공허한 알렉산더 플레밍 (작성자)



2021.08.03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신 교수님께 지도를 받고 계시는군요...! 반대의 케이스도 있는데 제가 너무 일반화하여 글을 작성한 게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ㅠ

아무래도 연구 분야마다 연구의 결과와 과정이 가지는 의미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비하할 목적은 아니지만, 재료 및 신소재 분야에서 연구하는 지인만 봐도 과정이 어찌됐든 실험 결과가 훌륭한 golden sample 하나만 회드하며 노무이 나오다 하니까요

각자 처해있는 환경에 맞추



영남인서관 기쁘게요



2021.10.13

제 생각엔 많은 교수님들이 결과가 제일 먼저 나오는 두괄식을 선호합니다. 결과가 제일 뒤에 나오면 (혹은 실컷 뭐했다 뭐했다 등등에 대한 과정을 들었는데 결과가 없거나) 가끔 듣기가 힘들거든요.

0 0

후회하는 찰스 다윈



2021.08.02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댓글 0개 대댓글 쓰기

0 0

찌질한 닐스 보어



2021.08.03

단점에 대한 피드백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수님의 경우 제가 마지막 제자로 박사과정을 목표로 하고있지만 최근들어 교수님의 질타가 듣고 싶은데도 날아오지 않는 경우가 생겨 상당히 불만족한 상황입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 몸도 안좋은데 지금까지 따라오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한 보상적인 부분으로 최대한 자제하신다는걸 연구실 포닥선배님께 따로 전해들은 뒤로는 더 마음이 편치않습니다.

또 교수님이 은퇴하셔야 될 나이셔서 어쩔 수 없이 타 대학의 관련 연구실에 박사진학을 할 듯 한데 과연 지금같은 패턴으로 그쪽으로 진학해 버터낼 순 있을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저 겁만나고 해결은 되지 않으니 최근엔 연구실적도 부진한게 정말 불같이 화라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말 부족하고 고칠데 투성인데 충분히 만족하신다 그러시니 \...

↪ 대댓글 1개 대댓글 쓰기

1 3 0

활기찬 닐스 보어



2021.08.04

제 박사과정과 흡사하셔서 글 남깁니다. 이런 경우엔 다른 교수님의 지도를 병행해야 합니다. 지도교수님 양해를 받아서 다른 (젊은) 교수님을 co-advisor로 영입하거나, side project식으로 활발히 돌아가는 연구팀과 함께 일을 해야 훈련이 됩니다.

2 0

속스러운 요하네스 케플러



2021.08.05

올 8월부터 타지 자대에서 박사 과정 시작하는 학부생입니다. 좋은 말씀 잘 읽었습니다. 학부시절 지역이 너무 짜증나고 싫어서 박사할때도 적응 못 할까바 걱정이 크지만 멘탈 관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대댓글 0개 대댓글 쓰기

0 0 0

취한 에르빈 슈뢰딩거



내가 뺏겨져서 그런가..

이런사람이 내 지도교수였으면

대댓글 0개 대댓글 쓰기

🔔 0 🗳️ 0 🗨️ 0

세심한 아르키메데스

2021.08.30

좋은 글 감사합니다.

덧붙이자면, 디프레션 크기가 너무 클 땐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살까지 사는 인생에서 몇 일 혹은 몇 주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댓글 0개 대댓글 쓰기

🔔 1 🗳️ 0 🗨️ 0

🎮 놀란 라이프니츠

2021.09.01

혹시 글쓰신 분은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셨나요?

대댓글 0개 대댓글 쓰기

🔔 0 🗳️ 0 🗨️ 0

성실한 레온하르트 오일러

2021.09.29

좋은 글 감사합니다

대댓글 0개 대댓글 쓰기

🔔 0 🗳️ 0 🗨️ 0

젊은 양투안 라부아지에

2021.11.05

저도 멘탈관리 안되서 정말 힘들었는데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네요..  
사람사는거 다 똑같은것 같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대댓글 0개 대댓글 쓰기

🔔 0 🗳️ 0 🗨️ 0

속편한 피터 힉스

2021.11.13

좋은 글 감사합니다.

대댓글 0개 대댓글 쓰기

🔔 0 🗳️ 0 🗨️ 0

어떤 의견을 남기시겠어요?

익명으로 게시

등록

Impact Forum

전체보기

1. <대학원에 입학하는 법>

심심한 마이클 패러데이

149 21 19787

2. 무엇인가를 관두고 싶어하는 분에게

열정적인 스티븐 호킹

53 17 8798

3. 우리 지도교수님..

정직한 존 스튜어트 밀

46 20 10967

4. [일반랩 vs 대가랩] 연구 및 논문비교 (과학자를 꿈꾸는 분들에게)

후회하는 가브리엘 마르케스

119 19 26344

5. 박사과정생과 프레스시 박사들을 위한 연구제안서 쓰는 팁

착한 피보나치

97 13 11895

6. 지도교수와 잘 맞는다는것

춤추는 쇠렌 키르케고르

59 18 17374

7. 우리 교수님 솔직히 너무 좋음

속편한 에이다 러브레이스

130 37



### ist 석사 진학 가능할까요?

♡ 0 💬 0 🗨 11 👁 1650

2021.08.02

### 고학력중에서도 기독교인 많던데 천지창조 믿는거인가??

♡ 3 💬 3 🗨 23 👁 1273

2021.08.02

### 나 찢릴거 같은데

♡ 2 💬 4 🗨 8 👁 2203

2021.08.02

### 진짜 존나 그만두고싶다..

♡ 3 💬 0 🗨 8 👁 2064

2021.08.02

### 현대 모비스 계약학과 서류 스펙통과 가능합니까

♡ 0 💬 7 🗨 8 👁 2246

2021.08.02

### 👤 대학원 신입생들을 위한 연구 미팅 팁들

♡ 140 💬 1 🗨 22 👁 44117

2021.08.02

### 밑에 엘리트 체육 글이 있길래.

♡ 4 💬 2 🗨 4 👁 880

2021.08.02

### 서울 중하위권에서 타대 진학

♡ 1 💬 0 🗨 6 👁 1211

2021.08.02

### 카이스트 경영공학 지원했는데

♡ 1 💬 0 🗨 9 👁 1332

2021.08.02

### 박사과정

♡ 0 💬 0 🗨 11 👁 1180

2021.08.02

### 우리나라 좀 바뀐거.. 나만 느껴?

♡ 12 💬 4 🗨 8 👁 2696

2021.08.02

### 최근 인기글

교수 창업의 문제와 검직을 금하는 ...



내 석사생활 참 많은일들이 있었네요^^	6
요즘에는 서열매기는 빌런들 좀사라진듯싶네요	5
한국 임용....	5
자퇴를 해보신 분들, 후회하시나요?	4
이거 젊은 끈대려나요	3
이번에 포항공대(포스텍) 철강 에너지 소재 대학원 지원하신 분 계신가요?	2
지방대생의 고민	2

## 월간 인기글

교수 임용 후 오는 번아웃	58
임팩트 포럼에 올라간 "연구자로 살길 잘했다" 라는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대략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황 ...	50
우리 지도교수님..	46
어떤 연구실을 가야하는가 (1): 사실 학벌은 중요하지 않다.	39
길었다...	34
지도 교수는 반드시 인성이 바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32
김박사넷에서 계속해서 보이는 우문우답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29
지도교수의 중요성	27
교수 창업의 문제와 검직을 금하는 이유	23
대학원 연구실 선택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21

궁금한 내용을 검색해 보세요!



김박사넷 홈으로

김박사넷 플러스 홈으로

기업회원 홈으로

논문알리미 BETA

서베이



---

오류 정정 요청

교수정보 등록

학과 등록요청

이용약관

기업회원 이용약관

김박사넷 익명로직

개인정보 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